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교류 특성 및 자기 효능감과 문화적 역량의 관계

The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istics of Cultural Exchanges, Self-efficacy, and Cultural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양선이

제주한라대학교 간호학과

Sun-Yi Yang(ysy@chu.ac.kr)

요약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 효능감과 문화적 역량 정도, 문화적 교류 특성 및 자기 효능감과 문화적 역량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대상으로 일 대학의 간호대학생 301 명이 참여하였다. 자료 수집은 General Self-efficacy Scale, the Caffrey Cultural Competence Healthcare Scale(CCCHS), The Cultural Competence Assessment(CCA) 도구들을 통하여 설문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본 연구 결과 자기 효능감과 문화적 역량 정도는 중간수준(자기 효능감: M=3.0, SD=0.38; 문화적 역량: M=2.8, SD=0.55)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간호대학생의 학년이 높을수록 외국인 친구가 있을수록 유의미하게 높은 자기 효능감과 문화적 역량 정도를 나타냈다. 더 나아가 자기 효능감과 문화적 역량의 상관성($r=.394, p < .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교류 및 자기 효능감 증진을 통하여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중심어 : | 자기 효능감 | 문화적 역량 | 다문화 |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ed to find the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istics of cultural exchanges, self-efficacy and cultural competence in Korean nursing students. Method: A total of 301 nursing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through the use of questionnaires which were constructed to include the General Self-efficacy Scale, the Caffery Cultural Competence Healthcare Scale(CCCHS), and the Cultural Competence Assessment(CCA). Result: Self-efficacy and cultural competency of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shown to have moderate levels (Self-efficacy: M=3.0, SD=0.38; Cultural competency: M=2.8, SD=0.55). And the nursing students who have higher grade and foreign friends were found to have significantly higher self-efficacy and cultural competence. Moreover,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elf-efficacy and cultural competency ($r=.394, p .001$). Conclus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nursing students need to enhance cultural exchanges and self-efficacy to reinforce cultural competence.

■ keyword : | Self-efficacy | Cultural Competency | Multiculture |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과거 단일민족을 표방하던 우리나라가 21세기 급속한 정보화, 세계화, 개방화로 인하여 다문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안전행정부[1]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는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 대비 2.8%를 차지하며, 2050년에는 9.2%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2][3].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이주로 인한 생활환경 변화 및 적응 상의 건강문제,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한 건강 위협, 임신 및 출산 등으로 국내 의료기관을 찾고 있다[3].

또한, 2009년 의료법 제27조 3항 개정에 따라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등록의 장벽이 낮아졌으며 외국인 환자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되고 있어 의료기관의 외국인 환자의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4].

이에 국내의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가 다양한 문화·사회적 배경을 가진 집단으로 확대되었음을 인식하고 다 문화권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적 특성에 맞는 개별화된 전인 간호를 수행함으로써 최적의 간호를 제공하여야 한다[5-8]. 대상자의 문화에 대한 고려 없이 간호를 제공할 시 간호 제공자와 간호 대상자 간의 갈등 및 문제 상황이 야기될 수 있으며 총체적 간호 제공에도 한계를 가져올 수 있다[3].

이에 간호사가 다문화 대상자를 돌봄에 있어 다 문화·사회권에 속한 사람들의 신념, 가치, 관습, 행동 등을 이해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여 능숙하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문화적 역량이라 한다[8][9].

문화적 역량에 대하여 Campinha-Bacote[10]는 문화적 역량모텔(Culturally Competent Model of Care)을 통하여 문화적 역량을 4가지 구성요인 문화적 인식, 문화적 지식, 문화적 기술, 문화적 경험으로 제시하였다.

문화적 교류는 문화간호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이며 문화적 역량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8]. 타 문화권의 사람과 친교 경험이 많을수록 자기 효능감은 더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3]. 이는 자기 효능감이 선행적 경험을 바탕으로 가지게 되는 것으로 자기 효능감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문화교류가 선행되어야 한다[11].

자기 효능감은 개인이 어떤 결과를 산출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이다[3]. 또한, 특정한 과제의 수행이나 학업 성취 상황에서 수행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개인적 특성으로 문화적 역량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 선행적으로 가져야 하는 주요변인이다. 따라서 자기 효능감은 문화적 역량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11][12].

Cronin[13]은 문화적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최근 몇 년 사이 간호대학에서는 다문화적 환경 변화 추세에 발맞추어 다문화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문화적 역량 증진 교육에 대한 결과 보고가 미비하며 다문화적 지식 전달에 초점을 두고 있어 문화적 역량을 갖춘 간호사 배출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3].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교류 특성 및 자기 효능감과 문화적 역량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강화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교류 특성 및 자기 효능감과 문화적 역량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문화적 교류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자기 효능감 및 문화적 역량을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문화적 교류 특성에 따른 자기 효능감 및 문화적 역량의 차이를 파악한다.

넷째, 자기 효능감과 문화적 역량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자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J시 일 대학의 임상 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 3학년과 4학년 340명을 비 확률 편의표집하여 이 중 무응답이나 불성실한 응답을 한 39명을 제외한 301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본 표본 크기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위한 대상자 표본 수 산출방법인 G power 3.1.3[14]을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 5%(양측), 80% power, 효과크기(0.2) 조건 하에 필요한 최소 표본크기는 280명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표본 수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2. 연구 도구

2.1 자기 효능감

자기 효능감은 개인이 어떤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이며, 특정한 과제 수행이나 학업 성취 상황에서 수행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개인적 특성이다[11].

본 연구에서는 Sherer 등[15]이 개발한 'General Self-efficacy Scale'을 전상원[16]이 번역 및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동기적 측면 8문항, 인지적 측면 7문항의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Likert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 .86$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75$ 로 나타났다.

2.2 문화적 역량

문화적 역량은 건강관리전문가가 대상자(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문화적 맥락 안에서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유용성을 성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이다[10].

본 연구에서는 Caffrey 등[17]이 개발한 'The Caffrey Cultural Competence Healthcare scale (CCCHS)'와 Schim 등[22]이 개발한 'The Cultural Competence Assessment (CCA)'를 박정숙[8]이 번역 및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The Caffrey Cultural Competence in Healthcare scale (CCCHS)'는 문화적

역량의 하위척도 중 문화적 인식, 문화적 지식, 문화적 수용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도구이며, 'The Cultural Competence Assessment(CCA)'는 문화적 역량의 하위척도 중 문화적 행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도구이다. 각 영역 당 문항 수는 문화적 인식 6문항, 문화적 지식 10문항, 문화적 행위 14문항, 문화적 수용성 12문항 총 4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Likert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 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 는 .90이었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3$ 으로 나타났다.

2.3 문화적 교류 특성

문화적 교류 특성은 외국여행 경험, 해외체류 경험, 외국어 강좌 수강 경험, 외국어 실력, 다문화 대상자와의 접촉 경험, 외국인 친구 유무, 현장 실습에서 다문화 대상자 및 보호자를 접촉한 경험, 다문화 관련 교육경험, 다문화 관련 교육의 필요성에 묻는 총 9 문항으로 선형 연구를 참조하여 연구자가 구성하였다.

3. 윤리적 고려

연구 시작 전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일 간호대학의 연구윤리심의 위원회의 심의 (승인번호 IRB1044348-20140113-HR-001-01)를 받았다.

본 연구는 구조화된 자가보고 설문지를 이용한 서술적 조사연구로써 연구 위험성은 Level I 인 최소위험에 해당하나 연구의 피험자가 책임연구자의 학생으로 취약한 피험자 군에 속함으로 연구 동의과정 및 작성과정에 책임 연구자는 참여하지 않았다.

자료 수집을 위해 학과 홈페이지에 연구 모집 공고를 올리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대상자에게 책임 연구자가 아닌 연구 조사를 통하여 연구의 목적, 방법을 설명 한 후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설문에 참여하는 동안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는 경우 그만 둘 수 있음을 알리고 설문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익명성과 비밀이 보장됨을 설명하였다.

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자료 수집은 2014년 1월 24일부터 2월 14일까지 시행

되었으며, 일 대학의 학과장의 협조를 얻어 연구 조사가 학과를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 설문지 및 동의서 작성 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각 연구대상 간호학생들은 자가 보고식 설문지에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작성시간은 약 10-15분이 소요되었다. 총 340부의 설문지 중 313부(92%)가 수거되었고, 미완성된 설문지 12부를 제외한 301부(89%)를 최종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PASW SPSS-WIN 19.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및 문화적 교류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자기 효능감과 문화적 역량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및 문화적 교류 특성에 따른 자기 효능감 및 문화적 역량의 차이는 정규성 검정(Kolmogorov-Smirnov test) 결과 $p < .05$ 으로 일반적 및 문화적 교류 특성에 따른 자기 효능감은 정규분포가 확인되지 않아 비 모수 분석방법인 Mann Whitney, Kruskal-Wallis로 분석하였으며, 일반적 및 문화적 교류 특성에 따른 문화적 역량의 차이는 $p > .05$ 으로 정규분포가 확인되어 independent samples t-test, one-way ANOVA t-test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증은 Scheffe 방법을 사용하였다. 자기 효능감과 문화적 역량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문화적 교류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인 간호대학생 301명의 일반적 특성 및 문화적 교류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1].

대상자의 성별은 여학생이 268명(89.0%), 남학생이 33명(11.0%)으로 여학생이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3학년 156명(51.8%), 4학년 145명(48.2%)으로 분포 하였다. 종교가 '없음'이 141명(46.8%), '있음'이 160명(53.2%)으로 간호대학생의 종교 유무는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외국 여행 경험이 '있다'가 90명(29.9%)이었고 해외체류 경험이 '있다'가 24명(8.0%)이었다. 외국어 강좌 수강 경

험은 '있다'가 216명(71.8%) 답하였다. 외국어 실력은 '유창하다'고 답한 경우는 8명(2.7%)이었고 '유창하지 않다'가 164명(54.5%), '전혀 유창하지 않다'가 129명(42.9%)으로 외국어 실력이 유창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외국인과의 교류경험은 '있다'가 63명(20.9%), '없다'가 238명(79.1%)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 친구 유무를 묻는 질문에 '있다'는 31명(10.3%)이었고 '없다'는 270명(89.7%)으로 외국인 친구가 '없다'는 간호 대학생의 비율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임상실습 시 다문화 환자 접촉경험 여부는 '전혀 없다' 133명(44.2%), '가끔 접촉한다' 163명(54.2%)으로 나타났으며 '자주 접촉한다'는 답변은 5명(1.7%)으로 과반수의 학생들이 다문화 환자 접촉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 관련 교육 경험 유무를 묻는 질문에 '경험이 있다'가 228명(75.7%)이었고 '경험이 없다'가 73명(24.3%)이었으나, 다문화 관련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가 244명(81.1%)으로 '필요 없다' 57명(18.9%)보다 월등히 많았다.

표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문화적 교류 특성

(n=30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33(11.0)
	Female	268(89.0)
Grade	3	156(51.8)
	4	145(48.2)
Religion	Yes	141(46.8)
	No	160(53.2)
Experience of overseas trip	Yes	90(29.9)
	No	211(70.1)
Experience of living abroad	Yes	24(8.0)
	No	277(92.0)
Learning a foreign language lessons	Yes	216(71.8)
	No	85(28.2)
Foreign language fluency	Absolutely not fluent	129(42.9)
	Not fluent	164(54.5)
	Fluent	8(2.7)
Experience of interaction with foreigners	Yes	63(20.9)
	No	238(79.1)
Foreign friends	Yes	31(10.3)
	No	270(89.7)
Opportunity to contact with foreign patients	Never	133(44.2)
	Sometimes	163(54.2)
	Frequently	5(1.7)
Multicultural educational experience	Yes	228(75.7)
	No	73(24.3)
Necessity of cultural education	Yes	244(81.1)
	No	57(18.9)

2. 간호대학생의 자기 효능감 및 문화적 역량 정도

연구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의 자기 효능감 및 문화적 역량의 평균 평점 정도는 [표 2]와 같다. 자기 효능감은 5점 만점에 3.0점, 자기 효능감의 하위척도인 동기적 측면은 3.3점, 인지적 측면은 2.7점이었다. 문화적 역량은 5점 만점에 2.8점, 문화적 역량의 하위척도인 문화적 인식 2.7점, 문화적 지식 2.4점, 문화적 행위 3.1점, 문화적 수용성 2.8점이었다[표 2].

표 2. 간호대학생의 자기 효능감 및 문화적 역량 정도

Variables	Number of items	M±SD
Self-efficacy (total)	15	3.0±0.38
motivational aspect	8	3.3±0.54
cognitive aspect	7	2.7±0.46
Cultural Competence (total)	42	2.8±0.55
cultural awareness	6	2.7±0.55
cultural knowledge	10	2.4±0.59
cultural behavior	14	3.1±0.57
cultural receptivity	12	2.8±0.54

3.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문화적 교류 특성에 따른 자기 효능감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문화적 교류 특성에 따른 자기 효능감 정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간호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자기 효능감의 정도를 비교한 결과 하위척도인 동기적 측면($Z=-2.551, p=.011$)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기 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인지적 측면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기 효능감($Z=-3.108, p=.002$)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간호대학생의 외국어 실력에 따라 외국어 실력이 유창하거나 유창하지 않은 간호대학생이 외국어 실력이 전혀 유창하지 않다는 간호대학생보다 자기 효능감($\chi^2=7.273, p=.026$)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외국인 친구가 있는 간호대학생의 자기 효능감($Z=-3.080, p=.002$)과 자기 효능감의 하위척도인 동기적 측면($Z=-3.152, p=.002$)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다문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한 간호대학생이 다문화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간호대학생보다 자기 효능감의 하위척도인 동기적 측면($Z=-1.993, p=.046$)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표 3].

4.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문화적 교류 특성에 따른 문화적 역량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문화적 교류 특성에 따른 문화적 역량의 정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간호대학생의 학년에 따른 문화적 역량의 정도를 파악한 결과 4학년 재학생이 3학년 재학생보다 문화적 역량($t=-3.50, p=.001$)과 문화적 역량의 하위척도인 문화적 인식($t=-4.43, p=.011$), 문화적 지식($t=-3.25, p=.001$), 문화적 수용성($t=-3.61,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간호대학생의 종교 유무에 따라 종교가 있는 간호대학생이 종교가 없는 간호대학생보다 문화적 역량 점수($t=2.15, p=.032$)와 문화적 행위($t=3.42,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외국어 수강 경험 유무에 따라 수강 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인식 점수($t=2.55, p=.011$)가 수강 경험이 없는 간호대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간호대학생의 외국어 실력에 따라 외국어 실력이 유창하거나 유창하지 않은 간호대학생이 외국어 실력이 전혀 유창하지 않다는 간호대학생보다 문화적 역량 점수($F=3.27, p=.039$)와 문화적 지식 점수($F=5.61, p=.004$)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간호대학생의 외국인과의 교류 경험에 따라 교류 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점수($t=2.15, p=.032$)가 교류 경험이 없는 간호대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외국인 친구가 있는 간호대학생이 외국인 친구가 없는 간호대학생보다 문화적 역량 점수($t=2.25, p=.025$)와 문화적 수용성 점수($t=3.40,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다른 문화권에서 온 환자 및 보호자와의 접촉 기회가 가끔 있거나 자주 있는 간호대학생이 접촉 기회가 전혀 없는 간호대학생보다 문화적 인식 점수($t=6.68,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다문화 관련 수업 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이 수업 경험이 없는 간호대학생보다 문화적 지식 점수($t=2.52, p=.012$)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표 3.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문화적 교류 특성에 따른 자기 효능감

Characteristics	Categories	Self-efficacy (total)			motivational aspect			cognitive aspect		
		Mean Rank	U	Z or $\chi^2(p)$	Mean Rank	U	Z or $\chi^2(p)$	Mean Rank	U	Z or $\chi^2(p)$
Gender	Male	155.73	4266	-3.31 (.740)	187.36	3222	-2.551 (.011)	106.88	2966	-3.108 (.002)
	Female	150.42			146.52			156.43		
Grade	3	140.04	9600	-2.271 (.023)	141.65	9852	-1.938(.05 3)	146.08	10542	-1.025 (.305)
	4	162.79			161.06			156.30		
Religion	Yes	156.96	10395	-1.118 (.264)	157.28	10394.5	-1.179 (.239)	154.48	10789.5	-.656 (.512)
	No	145.75			145.47			147.93		
Experience of overseas trip	Yes	156.43	9006	-.709 (.478)	165.94	8150	-1.951 (.051)	137.51	8281	-1.769 (.077)
	No	148.68			144.63			156.75		
Experience of living abroad	Yes	136.81	29835	-.834 (.404)	153.29	3269	-.135 (.893)	126.98	2747.5	-1.420 (.156)
	No	152.23			150.80			153.08		
Learning a foreign language lessons	Yes	151.22	91325	-.070 (.944)	149.22	8794.5	-.569 (.569)	152.32	8895.5	-.422 (.673)
	No	150.44			155.54			147.65		
Foreign language fluency	Absolutely not fluent	141.48		3.061 (.0216)	135.43		7.273 (.026)	159.49		3.432 (.180)
	Not fluent	159.00			162.57			146.26		
	Fluent	140.50			164.88			111.25		
Experience of interaction with foreigners	Yes	153.94	73115	-.303 (.762)	159.54	6959	-.878 (.380)	151.21	7484	-.021 (.983)
	No	150.22			148.74	35400		150.95	35925	
Foreign friends	Yes	196.50	27745	-3.080 (.002)	197.53	2742.5	-3.152 (.002)	162.65	3824	-.792 (.428)
	No	145.78			145.66			149.66		
Opportunity to contact with foreign patients	Never	144.04		2.131 (.345)	141.96		3.784 (.151)	150.92		.713 (.700)
	Sometimes	157.42			159.44			150.08		
	Frequently	126.90			116.30			183.20		
Multicultural educational experience	Yes	150.58		-.149 (.881)	151.20		-.071 (.944)	148.40		-.923 (.356)
	No	152.32			150.38			159.12		
Necessity of cultural education	Yes	154.86		-1.595 (.111)	155.82		-1.993 (.046)	150.65		-.146 (.884)
	No	134.48			130.38			152.51		

표 4.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문화적 교류 특성에 따른 문화적 역량

Characteristics	Categories	Cultural Competence (total)		cultural awareness		cultural knowledge		cultural behavior		cultural receptivity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Gender	Male	2.9±0.62	0.57	2.8±0.67	0.43	2.5±0.74	0.46	3.2±0.70	0.50	2.9±0.69	0.50
	Female	2.8±0.43	(.576)	2.7±0.53	(.670)	2.4±0.58	(.648)	3.1±0.55	(.620)	2.8±0.52	(.620)
Grade	3	2.7±0.47	-3.50	2.6±0.55	-4.43	2.3±0.59	-3.25	3.1±0.60	-1.22	2.7±0.54	-3.61
	4	2.9±0.43	(.001)	2.9±0.51	(.001)	2.5±0.58	(.001)	3.1±0.54	(.222)	2.9±0.52	(.001)
Religion	Yes	2.9±0.44	2.15	2.8±0.54	0.53	2.4±0.56	0.99	3.2±0.54	3.42	2.8±0.52	1.00
	No	2.7±0.46	(.032)	2.7±0.55	(.598)	2.4±0.62	(.324)	3.0±0.58	(.001)	2.8±0.56	(.319)
Experience of overseas trip	Yes	2.8±0.46	0.15	2.8±0.57	0.28	2.4±0.54	0.62	3.1±0.58	-0.71	2.8±0.54	0.61
	No	2.8±0.46	(.878)	2.7±0.54	(.779)	2.4±0.62	(.535)	3.1±0.57	(.481)	2.8±0.54	(.541)
Experience of living abroad	Yes	2.8±0.47	-0.22	2.6±0.53	-1.70	2.4±0.54	-0.31	3.1±0.60	-0.42	2.9±0.57	1.02
	No	2.8±0.46	(.828)	2.8±0.55	(.091)	2.4±0.60	(.755)	3.1±0.57	(.672)	2.8±0.54	(.309)
Learning a foreign language lessons	Yes	2.8±0.41	1.74	2.8±0.51	2.55	3.1±0.53	1.48	3.1±0.53	1.36	2.8±0.51	1.28
	No	2.7±0.55	(.085)	2.6±0.60	(.011)	3.0±0.67	(.140)	3.0±0.67	(.178)	2.7±0.60	(.202)
Foreign language fluency	Absolutely not fluent	2.7±0.43 ^a	3.27 (.039) b.c.) ^a (Scheffe)	2.7±0.54	1.41	2.3±0.56 ^b	5.61 (.004) b.c.) ^a (Scheffe)	3.1±0.55	0.78	2.7±0.55	2.57
	Not fluent	2.9±0.47 ^b		2.8±0.56	(.245)	2.5±0.61 ^b		3.1±0.60	(.460)	2.8±0.52	(.078)
	Fluent	2.9±0.36 ^c		2.8±0.23		2.5±0.43 ^c		3.2±0.28		3.0±0.66	
Experience of interaction with foreigners	Yes	2.9±0.43	1.54	2.8±0.50	0.37	2.5±0.54	1.605	3.1±0.54	0.60	2.9±0.52	2.15
	No	2.8±0.46	(.125)	2.7±0.56	(.710)	2.4±0.61	(.110)	3.18±0.58	(.552)	2.8±0.54	(.032)
Foreign friends	Yes	3.0±0.50	2.25	2.9±0.62	1.39	2.6±0.60	1.83	3.2±0.56	.72	3.1±0.55	3.40
	No	2.8±0.45	(.025)	2.7±0.54	(.165)	2.4±0.60	(.068)	3.1±0.57	(.470)	2.8±0.53	(.001)
Opportunity to contact with foreign patients	Never	2.7±0.48	1.87	2.6±0.56 ^a	6.68 (.001) b.c.) ^a (Scheffe)	2.3±0.60	2.89	3.1±0.58	0.33	2.8±0.59	0.69
	Sometimes	2.8±0.44	(.156)	2.8±0.52 ^b		2.5±0.59	(.057)	3.1±0.57	(.719)	2.8±0.51	(.504)
	Frequently	2.9±0.19		2.9±0.52 ^c		2.8±0.22		3.0±0.47		3.0±0.25	
Multicultural educational experience	Yes	2.8±0.45	1.61	2.8±0.55	1.13	2.5±0.60	2.52	3.1±0.58	.75	2.8±0.54	.98
	No	2.7±0.47	(.109)	2.7±0.54	(.259)	2.3±0.57	(.012)	3.1±0.55	(.453)	2.7±0.56	(.328)
Necessity of cultural education	Yes	2.8±0.43	3.14	2.8±0.52	1.34	2.4±0.59	1.61	3.2±0.52	2.52	2.8±0.53	3.33
	No	2.6±0.51	(.002)	2.6±0.65	(.180)	2.3±0.60	(.109)	2.9±0.71	(.014)	2.6±0.53	(.001)

다문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한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점수가 다문화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간호대학생보다 문화적 역량 점수($t=3.14, p=.002$), 문화적 행위 점수($t=2.52, p=.014$), 문화적 수용성 점수($t=3.33,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표 4].

5. 자기 효능감과 문화적 역량수준의 상관관계

자기 효능감과 문화적 역량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자기 효능감과 문화적 역량의 상관성($r=.394,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효능감은 문화적 역량의 하위척도인 문화적 인식($r=.315, p<.001$), 문화적 지식($r=.269, p<.001$), 문화적 행위($r=.359, p<.001$), 문화적 수용성($r=.312, p<.001$)과 순 상관관계가 있었다.

자기 효능감의 하위척도인 동기적 측면은 문화적 역량($r=.425, p<.001$), 문화적 인식($r=.294, p<.001$), 문화적 지식($r=.278, p<.001$), 문화적 행위($r=.430, p<.001$), 문화적 수용성($r=.323, p<.001$)과 순 상관관계가 있었다.

자기 효능감의 하위척도인 인지적 측면은 문화적 역량($r=.130, p=.024$), 문화적 인식($r=.167, p=.004$), 문화적 수용성($r=.123, p=.033$)과 유의한 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표 5. 자기 효능감과 문화적 역량수준의 상관관계

	Cultural Competence				
	Cultural Competence (total)	Cultural awareness	Cultural knowledge	Cultural behavior	Cultural receptivity
Self-efficacy (total)	.394 (.001)	.315 (.001)	.269 (.001)	.359 (.001)	.312 (.001)
motivational aspect	.425 (.001)	.294 (.001)	.278 (.001)	.430 (.001)	.323 (.001)
cognitive aspect	.130 (.024)	.167 (.004)	.106 (.065)	.064 (.269)	.123 (.033)

IV. 논 의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계속적 증가에 따라 다문화 사회가 됨에 따라 다문화 대상자의 질병 치료 및 임신 및 출산을 위한 의료기관 이용률이 많아지고 있다[3]. 따라서 국내 간호전문인의 대상자가 내국인 중심에서 다문화 대상자로 확대되었으나 그들을 돌보기 위한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간호사가 다문화 대상자의 문화에 무관심하고 문화적으로 일치되지 않는 간호를 제공한다면 대상자의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3]. 더 나아가 다문화 대상자의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은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내 간호대학생의 문화간호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 실무,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연구가 시도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교류 특성 및 자기 효능감과 문화적 역량의 관계를 확인하고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방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문화간호 자기 효능감 이론 및 연구자인 Jeffreys [19]는 문화간호역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핵심 영향 요인인 자기 효능감을 알아야 하며 이를 증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김선희[3]는 문화간호역량을 높이기 위해 자기 효능감의 인지, 기술, 정서적 영역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자기 효능감은 평균 평점 5.0점 만점에 3.0점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측정도구로 다른 군 대상자인 아동센터 종사자의 자기 효능감을 확인 연구에서는 자기 효능감이 3.25점 [16]으로 본 연구와 비슷한 수준인 '중등도 이상'인 것으로 보인다. 국외에서는 본 도구를 사용한 자기 효능감 연구가 없어 국외와 국내를 비교 논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다른 도구를 사용한 미국의 간호대학생 자기 효능감 정도는 중상위 정도로 나타냈다[20]. 이러한 자기 효능감의 차이는 해당 국가의 다문화 역사가 한국보다 길며 다문화 인구 분포가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높아 다문화 대상자에 대한 노출 기회와 이해 정도가 높음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Bandura[11]의 자기 효능감 이론에서 성공적인 실제 경험과 관찰 경험이 많을수록 자기 효능감이 증가된다는 것과 그 맥락을 같이한

다. 반면에 연구도구가 다름으로 인한 차이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같은 도구를 이용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문화적 교류 특성에 따른 자기 효능감은 4학년 재학생과 외국인친구가 있다고 답할수록 자기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기 효능감의 하위척도 중 동기적 측면은 남학생, 외국어 실력이 유창할수록, 그리고 외국인친구가 있다고 답하거나 다문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간호대학생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인지적 측면은 여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성별에 따른 차이를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아동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기 효능감을 조사한 황중원[21]의 연구와도 일맥상통하는 결과로 자기 효능감은 실제적 경험 및 관찰 경험이 많을수록 개발될 수 있는 것임으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간호대학생 자기 효능감 증진을 위한 다문화 관련 교육 및 실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평균은 5점 만점에 2.8점으로 조사되어 종합병원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 평균 2.57점보다 높게 측정되었다[9]. 양선이, 임효남, 이주희[8]의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평균은 2.7점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연구 결과에서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평균 점수가 간호사 대상 평균 점수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문화적 역량이 높게 측정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8]과 유사하며 최근 다문화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에 따라 간호대학생들이 간호학 교과내 수업 등 다문화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를 실시한 지역적 특성 상 다문화 대상자와 접촉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아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적 역량 정도를 파악한 양선이, 임효남, 이주희[8]의 연구에서 다문화 대상자와의 접촉 기회가 많을수록 문화적 역량 점수가 높았던 결과를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다문화 대상자와의 잦은 접촉이 문화적 역량 개발과 주요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평균 점수가 미국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평균 3.19점[17]보다는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오랜 다문화 역사를 가진 사회 안에서 다문화 대상자 접촉 및 교육의 기회가 많았던 학생들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급속히 형성된 다문화 사회로서 다문화 대상자 접촉 및 교육의 기회가 충분치 않아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문화적 역량의 하위 영역인 문화적 인식, 문화적 지식, 문화적 행위, 문화적 수용성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행위가 가장 높은 점수인 3.1점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적 지식이 2.4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양선이, 임효남, 이주희[8]의 연구 및 대학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이정임[22]의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로 이는 연령대가 낮은 간호 대학생들은 행동력이 있기에 나타난 결과로 보이며 최근 다문화 관련 교과목 개설이 되기 시작하였으나 충분하지 못하고 교과목 내용이 실제적 문화적 지식을 증진시키지는 못한다고 간호대학생이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은 학년, 종교, 외국어 실력, 외국인 친구의 유무, 다문화 교육의 필요요구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한 양선이, 임효남, 이주희[8]에 따르면 종교 유무, 외국여행 경험, 외국어 실력, 외국인과의 교류경험, 외국인 친구 유무, 다문화 관련 교육의 필요성 인식 여부가 문화적 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외국어 실력이 유창할수록 문화적 역량이 높게 나타난 연구들[22]과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타 언어를 습득하거나 외국인과의 교류를 통하여 타 문화에 대한 지식과 수용성이 함께 높아진 결과로 보인다. 이에 언어적 장벽이 문화적 역량과 깊은 관련성이 있으므로 간호대학생의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외국인과의 접촉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문화적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지지한다[8].

본 연구에서 자기 효능감과 문화적 역량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자기 효능감과 문화적 역량과는 유의

한 순 상관관계($r=.394, p < .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미정, 오효숙[12]의 연구 결과($r=.351, p < .001$)와도 유사하다. 이에 문화적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문화적 역량과 자기 효능감의 하위영역인 동기적, 인지적 요소와의 상관관계에서는 두 요소 모두 문화적 역량과 유의한 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기적 요소가 더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기 효능감 증진 훈련으로 동기적, 인지적 요소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문화적 역량 향상에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자기 효능감의 동기적 요소는 문화적 인식, 문화적 지식, 문화적 행위, 문화적 수용성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자기 효능감의 인지적 요소는 문화적 인식 및 문화적 인식과 문화적 수용성에서 순 상관관계를 보였다. 픽은희, 박계순[23]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문화적 역량 및 자기 효능감을 강화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 효능감은 다문화 교육을 통하여 문화적 역량을 갖춘 사람이 되어가는 것으로 간호학 교과 내에서 교육 훈련이 계획 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26].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문화적 역량 강화를 위해서 문화적 역량과 상관관계가 있는 자기 효능감 향상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비 확률편의추출에 의한 조사이므로 외적 타당도의 문제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연구대상 및 지역을 확대한 반복연구 및 무작위 표본 추출방법을 적용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는 이변량 분석으로만 결론을 맺어 일반적 특성 및 문화적 교류 특성을 나타내는 요인을 설명요인으로 포함한 다변량 선형 회귀분석이 되지 못한 점이 본 연구의 한계점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가까운 미래에 점차로 증가하는 다문화권

환자들에게 최적의 간호를 제공해야 하는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적 역량을 증진시킬 방법을 모색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교류 특성 및 자기 효능감과 문화적 역량의 관계를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간호대학생의 학년, 종교, 외국어 실력, 외국인 친구의 유무, 다문화 교육의 필요 요구 여부에 따라 문화적 역량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자기 효능감과 문화적 역량은 유의한 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문화적 역량 강화를 위해서 문화적 역량과 상관관계가 있는 자기 효능감 향상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그러나 본 연구만으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연구대상 및 지역을 확대한 반복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 문헌

- [1] 안전행정부, 외국인주민수 144만 5천명, 주민등록 인구 대비 2.8%. Retrieved March 2, 2013, http://www.mospa.go.kr/fi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29783/
- [2] 이삼식, 전영준, 신화연, *저출산 고령사회에서 외국인 유입의 파급효과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 [3] 김선희, “간호사의 문화간호 자기효능감과 문화간호역량 교육 요구”,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제43권, 제1호, pp.102-113, 2013. DOI: <http://dx.doi.org/10.4040/jkan.2013.43.1.102>.
- [4] 정면숙, “우리나라 보건의료 관련 다문화 정책의 현황과 과제: 간호학적 측면에 대한 고찰”,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제6권, 제1호, pp.1-20, 2009.
- [5] P. L. Donnelly, “Ethics and cross-cultural nursing,” *Journal of Transcultural Nursing*, Vol.11, No.2, pp.119-126, 2000.

- [6] J. Campinha-Bacote, "Becoming culturally competent in ethnic psychopharmacology," *Journal of Psychosocial Nursing and Mental Health Services*, Vol.45, No.9, pp.27-33, 2007.
- [7] 오원옥,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민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동간호학회지*, 제17권, 제4호, pp.222-229, 2011.
- [8] 양선이, 임효남, 이주희, "간호대학생의 공감 능력과 문화적 역량과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9권, 제2호, pp.183-193, 2013.
- [9] 채덕희, 박윤희, 강경화, 이태화, "종합병원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수준과 영향요인", *간호행정학회지*, 제18권, 제1호, pp.76-86, 2012.
- [10] J. Campinha-Bacote, "A model and instrument for addressing cultural competence in health car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38, pp.203-207, 1999.
- [11] A. Bandura.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Pack, K.B. Trans.), NY: Freeman and Company, 2001.
- [12] 심미정, 오효숙, "간호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동기 및 자기주도적 학습태도가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6호, pp.328-337, 2012.
- [13] M. S. Cronin, *Enhancing the cultural competence of social work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eshiva University, NewYork, 2005.
- [14] F. Faul, E. Erdfelder, A. G. Lang, and A. Buchner,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39, No.2, pp.175-191, 2007.
- [15] M. Sherer, J. E. Maddux, B. Mercadante, S. Prentice-Dunn, B. Jacobs, and R. W. Rogers,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Vol.51, pp.663-671, 1982.
- [16] 전상원, *사회복지사의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용인, 2009.
- [17] R. A. Caffrey, W. Neander, D. Markle, and B. Stewart, "Improving the cultur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Results of integrating cultural content in the curriculum and an international immersion experienc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44, No.5, pp.234-240, 2005.
- [18] S. M. Schim, A. Z. Doorenbos, J. Miller, and R. Benkert, "Development of a Cultural Competence Assessment instrument," *Journal of Nursing Measurement*, Vol.11, No.1, pp.29-40, 2003.
- [19] M. R. Jeffreys, *Teaching cultural competence in nursing and health care (2nd ed.)*, Springer, 2010.
- [20] M. R. Jeffreys and E. Dogan, "Evaluating the influence of cultural competence education on students' transcultural self-efficacy perceptions," *Journal of Transcultural Nursing*, Vol.23, No.2, pp.188-197, 2012.
- [21] 황중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자기효능감이 문화역량에 미치는 영향: 매개변수 전문직업성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광주, 2013.
- [22] 이정임,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과 공감과의 관계*, 한림대학교 간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춘천, 2012.
- [23] 픽은희, 박재순,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공감능력,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제43권, 제5호, pp.690-696, 2013. DOI: <http://dx.doi.org/10.4040/jkan.2013.43.5.690>.

저 자 소 개

양 선 이(Sun-Yi Yang)

정회원



- 2006년 12월 : 미국 하와이퍼시픽대학교 간호학과(학사)
 - 2010년 5월 : 미국 하와이퍼시픽대학교 간호학과(석사)
 - 2014년 7월 : 연세대학교 간호학과(박사수료)
 - 2011년 3월 ~ 현재 : 제주한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아동간호, 간호교육